

# “SNL부터 NFL까지...쿠팡플레이에서 보세요”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쿠팡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힘을 주고 있다. ‘쿠팡플레이’에 드라마와 예능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스포츠 콘텐츠를 대거 추가하며 영향력을 키우는 한편,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까지 나섰다.

7월 기준 이용자 172만명, 왓차·시즌 넘어서 프랑스리그1 중계 등 스포츠콘텐츠 공격적 확보 ‘SNL 코리아’ 4년 만에 부활...이병헌 등 출연 축구 국가대표팀 후원 통해 콘텐츠 제작나서

### ●PSG와 보르도 경기 생중계

지난해 말 출시한 쿠팡플레이는 쿠팡의 유료 멤버십 ‘와우’(월2900원)에 가입한 회원들에게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는 OTT다. 쿠팡에 고객을 가두는 이른바 ‘록인(Lock-in) 효과’를 겨냥한 서비스다. 아마존이 ‘아마존 프라임비디오’를 선보인 것과 유사한 행보다.

콘텐츠 전략도 비슷하다. 대표적인 것이 공격적인 스포츠 콘텐츠 확보다. 쿠팡플레이는 FC 지롱댕 드 보르도와 파리 생제르맹 FC(PSG) 경기를 디지털 생중계 한다고 최근 밝혔다. PSG는 리오넬 메시가 이적한 팀으로 네이마르와 킬리안 음바페 등 유명 선수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보르도는 국가대표팀 간판 스트라이커인 황의조의 소속팀이다. 쿠팡플레이는 한국축구 기대주 이강인이 새롭게 등지를 뜬 레알 마요르카의 스페인 라리가 경기도 디지털 생중계할 예정이다. 이밖에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 홋스퍼 FC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생중계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프로풋볼리그인 NFL의 독점 생중계권도 가져오면서 스포츠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쿠팡플레이는 2021~2022 시즌부터 2023~2024 시즌까



쿠팡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쿠팡플레이’가 콘텐츠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다. 4년 만에 부활한 ‘SNL 코리아’(위)와 쿠팡플레이에서 디지털 생중계하는 프랑스 리그1. 사진제공 | 쿠팡

지 3년 동안 NFL을 독점 생중계한다. 매년 2월 열리는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 ‘슈퍼볼’ 역시 쿠팡플레이에서 만나볼 수 있다.

### ●독점 콘텐츠 제작도 나서

쿠팡플레이는 최근 사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분석서비스 와이즈앱이 국내 서비스 중인 OTT 앱을 조사한 결과 쿠팡플레이의 7월 기준 사용자는 172만 명으로 나타났다. 아직 넷플릭스와 웨이브, 티빙 등에 이은 5위지만, 후발주자로서 왓차와 시즌 등을 뛰어넘은 결과다. 스포츠는 물론 영화 ‘미나리’를 독점 제공하고, 교육 콘텐츠 등 차별화 전략을 추구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오리지널 콘텐츠도 선보이기 시작했다. 쿠팡플레이를 통해 4년 만에 부활한 ‘SNL 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신동엽을 비롯해 안영미와 정상훈 등이 참여하고, 이병헌과 하지원 등 인기 스타들이 게스트로 등장했다. 4일 첫 화를 시작으로 총 10회에 걸쳐 매주 토요일 밤 10시 공개된다. SNL을 선보인 뒤 쿠팡플레이의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플레이는 이후에도 오리지널 및 독점 콘텐츠 확보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쿠팡플레이는 최근 대한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십 계약을 맺고 2025년까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후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 월드컵을 향한 도전기를 담은 오리지널 콘텐츠 ‘로드 투 카타르’ 제작에 나선다. 선수단과 팬들을 비롯해 월드컵 도전을 지원하는 각계각층의 스토리를 담은 예정이다. 쿠팡플레이는 또 김수현과 차승원 등이 주연을 맡은 드라마 ‘어느 날’도 11월 독점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 OTT 시장은 막강 콘텐츠 파워를 자랑하는 ‘디즈니플러스’가 한국 시장에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는 11월을 기점으로 경쟁이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 마왕 신해철 목소리, KT AI기술로 다시 듣는다

故 신해철 라디오방송 데이터 AI에 학습 라디오콘텐츠 3편, 기가지니 통해 제공

‘마왕’ 신해철의 목소리가 인공지능(AI) 기술로 되살아난다.

KT는 대중음악인이자 인기 라디오 DJ였던 고 신해철의 음성을 AI 기술로 복원했다고 12일 밝혔다. 자체 개발한 개인화 음성합성 기술(P-TTS)을 활용해 2001년부터 2012년까지 11년 동안 진행했던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라디오방송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켰다.

P-TTS는 딥러닝을 이용해 짧은 시간의 음성데이터로 특정 인물의 목소리를 합성해 낼 수 있다. KT의 AI

는 단순하게 문장을 발음하는 수준을 넘어 발화 패턴이나 억양까지 학습해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과 같은 목소리를 구현했다.

KT는 AI로 복원된 신해철의 목소리로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을 제작했다. 해당 콘텐츠는 3편의 라디오 방송 형태로 10월 7일까지 한 달 동안 KT의 기가지니를 통해 들을 수 있다.

기가지니에 “신해철 목소리 들려줘”라고 요청하면 된다. 팬들과 기가지니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을 위해 17일부터 KT 유튜브 채널에도 공개한다.

KT는 “최근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에 인디밴드의 어려움을 주제로 대중음악 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하는 신해철의 모습을 담은 등 대중이 기억하는 신해철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



KT가 AI로 복원한 ‘마왕’ 신해철 목소리를 담은 ‘AI DJ, 신해철과의 만남’. 사진제공 | KT

했다. AI DJ, 신해철과의 만남에는 신해철과 라디오 방송을 함께 했던 ‘배철수의 음악캠프’ 메인 작가지자 MBC 라디오방송 ‘배훈탁의 비사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배훈탁 작가가 참여했다.

성은미 KT IMC담당 상무는 “KT의 AI 기술이 고객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대중문화에도 접목할 수 있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9월 13일 (월) 음력: 8월 7일 문의: (02) 812-1201, 도원화당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행운색: 흰색 길방: 서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노랑 길방: 중앙
결단력을 가지고 자신의 의지대로 결행할 필요가 있다. 명예가 따르고 금전적인 여건도 아울러 발전하니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밀고 나가는 행동력과 확고한 자기노력이 뜻을 실현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쥐가 쥐를 만난 날이다.	귀인의 도움으로 명예와 재물이 따르며 문서적인 문제도 자신의 소신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성간에도 지금까지의 지연상태가 급변하여 원하는 상태로 돌입하며 좋은 인연을 맺게 될 것이다. 시도하라. 오늘은 육해상 일이다.	과욕을 부리지 않는 상태라 하더라도 문서로 인한 주위의 질시의 분위기가 초래되며, 정신적 불안감 또한 조성되므로 명예나 이익의 추구보다는 이성의 안정 상태를 유지하도록 힘써라. 여성의 경우 외간남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조심하라.	강인한 정신력으로 돌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주위의 인정을 의식하여 자신의 주관을 잃으면 고통을 맛보기 쉽다. 과감성을 갖고 행동에 임하면 명예는 한층 더 돋보일 수 있다. 토끼가 쥐를 만나면 자묘형으로 풍파가 일어날 수 있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기인되며 모함이나 질투로 인하여 고립되는 상태에 놓인다. 자신의 반성과 상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용이 쥐를 만나면 처음은 좋다.	냉정 상태를 물고 가면 현 위치에서의 이탈, 또는 다른 파장에 까지 이르게 될 수 있으니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가가 중요하다. 모든 행동은 자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 오늘 뱀피는 움직이기 싫고 그저 개고기 싶은 날이다.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청색 길방: 동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검정 길방: 북	행운색: 적색 길방: 남	행운색: 흰색 길방: 서
성급함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면서 주위의 자문이나 조언을 귀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능한 한 타인의 일에는 간섭이나 개입을 않는 편이 좋으며, 건강에 많은 신경을 기울여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 오늘은 쥐날로 재살일이다.	주변사람들과의 인화에 치중하며 자기의 소임을 다 해나가야 한다. 중상모략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사람으로 감싸주고 너그럽게 용서해 준다면 결국 내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취직은 좀 더 기다려라. 문학이나 예술에서 기량을 발휘하는 날이다.	계획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조성되며 학업을 통해 보다 확고한 자신의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시기이다.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원숭이씨는 지살로서 움직이려는 기운이 강하다.	직업상의 변동과 문서와 연관된 일에서 이득을 찾으려 하는 때이므로 일관된 목표의식을 갖되 주위를 포용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크게 이득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현상유지만 도모할 뿐이다. 오늘은 쥐날로 마음이 급해지는 날이다.	의욕이 앞서거나 물질적인 면을 추구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태에서 안정을 찾아라. 한편 변화의 과정에 있어서 독자적인 행동보다는 인간적 유대관계에 마음을 쓰는 것이 유리하다. 오늘은 거주지를 중심으로 북쪽 방향에 사는 사람을 조심하라.	현실에서 모든 것을 탈피하고 싶은 심정이며 안정을 갖지 못하는 때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뒤엎었던 일들이 서서히 풀려나며 금전문제도 해결되니 결혼한 판단보다 경쾌한 마음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 오늘은 도화의 운이다.

## ‘5G’ 고객 잡아라...이통사 전용폰 경쟁

삼성전자와 협력한 중저가 제품들로 소비자 공략



SK텔레콤이 단독 출시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5’. 사진제공 | SK텔레콤

‘갤럭시Z’와 ‘아이폰13’ 등 프리미엄 대진이 압박한 가운데, 중저가 5G 제품도 속속 출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끈다. 특히 5G 가입자 확대를 위해 이동통신 3사가 삼성전자와 협력한 전용폰 경쟁이 본격화 했다. 이동통신 3사는 5G 고객 확보를, 삼성전자는 LG전자의 빈자리를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SK텔레콤은 5G 스마트폰 ‘갤럭시 와이드5’를 공식 온라인몰 T다이렉트샵과 오프라인 매장 T월드에서 단독 출시했다. 갤럭시와이드5의 출고가는 44만9900원이다. 6.6인치 풀HD+화면과 6400만 화소 카메라, 5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갖췄다. 플래그십 단말부터 가성비 단말까지 5G 스마트폰의 라인업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것이 SK텔레콤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도 5G 전용 스마트폰인 ‘갤럭시 버디’를 출시했다. 전국 LG유플러스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구매할 수 있다. 갤럭시 버디는 6.6인치 대화면, 128GB 메모리, 5000mAh 배터리를 지원한다. 출고가는 39만9300원이다.

KT는 앞서 5월 ‘갤럭시 점프’를 선보였다. KT 단독 판매 제품으로, 6.5인치 대화면, 128GB 메모리, 5000mAh 배터리를 지원한다. 출고가는 39만9300원이다.

## 네이버,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에 1082억 투자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웹툰이 국내 웹소설 플랫폼 문피아의 주식 325만511주를 약 1082억 원에 취득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주식 취득 후 네이버웹툰의 문피아 지분비율은 36.08%다. 주식 취득 목적은 ‘사업 제휴’다. 취득 예정 일자리는 확정되면 재공시 예정이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웹툰은 향후 발행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계획을 갖고 있고, 현재 이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취득 예정 일자 및 추가 취득에 관한 사항은 협의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취득 목적을 ‘사업 제휴’로 기재했으나, 이후 관련 사항들의 확정에 따라 취득 목적도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

편집 | 신하늬 기자 myhukki@donga.com

오늘의 날씨			13일(월)		
서울 0/0	인천 0/0	춘천 20/0	21 30	22 29	19 29
강릉 30/0	대전 0/0	전주 0/10	20 27	21 30	20 29
광주 20/30	대구 20/20	부산 20/20	20 27	20 28	22 27
창원 20/20	제주 60/70	지역 강수 확률 (오전/오후)	20 27	25 26	최저 최고온도

**스포츠동아 The sportsdonga 제3662호**

발행인·편집인 이인철 편집국장 연재호 사업총괄 김상수 광고국장 이숙옥

편집부장 안도영 스포츠부장 정재우 엔터테인먼트부장 이정연  
 산업경제부장 양형호 사진부장 고종철 인쇄 동아일보사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대표전화 02-361-1610 제보·투고 02-361-1616 so@donga.com